



제목	터키 문학의 이해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월인
발행일	2006. 3. 15.
저자	이난아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23
ISBN 또는 ISSN	978-8984773073

내용 요약

본 책은 터키 문학의 발생시기부터 현대까지의 터키 문학의 발전 양상을 다룬 저자의 논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우선 터키인들의 선조인 투르크 민족의 신화들(사카 신화, 오우즈 칸 신화, 픽 투르크 신화, 위구르 신화)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이 구비문학 작품들이 터키 민중 문학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여러 작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터키 문학은 이슬람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특히 터키의 문화, 사상, 언어 방면에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저자는 이런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문학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으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수프 하스 하집의 『쿠타드구 빌리그』, 카쉬가를르 마흐트의 『디완 위루갓 잇 투르크』, 아흐메트 『아타베틀 하카익』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중문학을 대표하는 민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등장인물 (거인, 마녀 또는 노파, 아랍인, 파디샤, 케울란, 요정)의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현대 시를 시기별로 분류(탄지마트 문학시기, 에데비야트 제디데 문학 시기, 페즈리아티 문학시기, 민족문학시기, 공화국 시기)하고 각 시대별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 외에도 소설, 시 장르 속에서 민족 정체성 모색 양상을 밝힘으로써 민족 문학의 발달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여성 문학의 활성화와 동서양 갈등 주제를 터키 현대 소설의 특징으로 들면서 여성의 삶, 문학속의 여성상, 사회적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오르한 파묵의 소설 『하얀성』, 『내 이름은 빨강』을 바탕으로 터키 사회에 만연한 동서양 문화의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에 대해 연구하였다.